

# 아담의 가정 교회를 통해 보는 예배론

윤용진 교수(구약학)

## I. 서언

위의 논제로 글을 적기 전에 먼저 교회의 개념을 간략히 살펴보자. 오늘날 “교회”라고 지칭하는 용어의 성경적 어원은 신약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 보통 교회로 번역된 신약의 헬라어는 Εκκλησία(Ekklesia)인데 “~밖으로”라는 뜻을 지닌 전치사 ἐκ와 “부르다”(to call out)라는 뜻을 지닌 동사 καλεω의 합성어이다. 그 의미는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을 뜻한다. 예수님은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가르쳐 주셨다(마 16:16-19).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해 볼 때 교회란 죄악 세상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무리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무리, 즉 영적 공동체를 뜻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교회란 절대 어느 한 민족이나 국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혈통과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우주적 보편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개념의 교회 실체는 구속사의 흐름을 살펴 볼 때 오순절 성령 강림사건을 필두로 시작되어 그 이후 세계만방으로 확대되며 모습을 드러냈다(행 2장).

그렇다면 구약성경에서도 교회라는 용어와 그 실체를 찾을 수 있는가? 구약성경에서는 교회라는 용어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유사한 개념의 용어는 발견할 수 있다. 보통 עדָה(Edah)와 קהָל(Qahal)이 사용된다. 이 두 단어의 어근은 모두 “부르다”(to call)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 두 용어를 한글판 번역 성경들은 보통 “회중”, “집회”, “총회”<sup>1)</sup> 등으로 옮겨 놓았다. 구약의 이 두 용어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이다. 구약과 신약성경에서 사용되는 위의 용어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 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에서 서로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는 곧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그 특징은 우선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로서 구성된 혈연공동체요,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수여받은 언약공동체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총회와 신약의 교회가 성격상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본질과 사명 내지 기능에 있어서 동일하다.

교회의 본질은 구성원인 성도들 상호간의 영적 교제(Communio Sanctorum)이다. 이 사실은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행 2:42-47)임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신앙공동체인 교회의 기본 사명 내지 기능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성경 진리에 입각하여 영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할 예배(Worship)의 사명(출 20:3-6, 22-26; 신

1) 특히, 총회(總會)라는 개념은 구약성경 중에서 오경의 민수기와 신명기에 여러 번 그리고 사사기에 두 번, 모두 21회 등장한다(민 16:2, 3, 33; 19:20; 20:4, 6, 10, 12; 신 5:22; 9:10; 10:4; 18:16; 23:1, 2, 3, 8; 31:30; 33:4; 사 20:2; 21:5, 8).

12:1-32; 롬 12:1-2; 마 5:13-16; 요 4:23-24)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가르칠 교육(Education)의 사명(신 6:4-9; 마 28:19-20; 딤후 3:14-17)이며, 셋째는 영생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할 선교(Mission)의 사명(창 12:1-3; 출 19:5-6; 마 28:19-20; 행1:8)이고, 넷째는 봉사와 구제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교제(Fellowship)의 사명(레 19:18; 마 22:37-40; 요 13:34-35; 15:9-17; 롬 13:8-10; 고전 13장; 행 2:42-47; 갈 6:10)이다. 구약 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신약 교회처럼 명확하게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그 원리와 정신은 괄호 안에 제 동일하다.

그리고 성경이 가리키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교회(민 22:18; 신 4:2; 12:32; 잠 30:6; 렘 26:2; 계 22:18-19; 요 8:31,32,47; 14:23; 딤후 2:15; 벧후 3:16; 요일 4:1-3; 요이 9)이어야 하고, 둘째는 성례를 성경적 원리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하는 교회(창 17:9-14; 출 12:40-51; 수 5:2-12; 마 28:19; 막 16:16; 행 2:42; 고전 11:23-30)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권징(勸懲)을 신실하게 시행하는 교회(신 13:1-18; 마 18:18; 고전 5:1-5,13; 14:33,40; 계 2:14,15,20)이어야 한다. 구약 교회에서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이 문제도 원리적인 면에서는 신약 교회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교회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의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 중에 예배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럼으로써 예배의 형식과 방법론에 치중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현대 교회의 예배 문제에 대하여 예배의 정신과 자세 문제가 우선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 II. 인류 최초의 가정 교회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최초의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서 묶어 주신 것, 다시 말해서 가정 창설의 목적은 무엇인가. 가정이라고 하면 단지 부부만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형제와 자매들 사이의 관계, 친척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등으로 확대되는 인적 구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조직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교회로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아담은 가정 교회의 목회자요 가족들은 성도들이 아니겠는가. 이 최초의 가정 교회도 위에서 언급한 교회의 본질과 사명 내지 기능에 관련하여 예외일 수 없다.

### 가. 예배와 교육공동체로서의 교회(2-5a절)<sup>2)</sup>

주석가 칼빈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문제를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교육 문제에 관련된 것으로 적용시키고 있다. 그는 두 아들의 제사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몇 구절 안 되는 짧은

2) 윤용진, “설교를 위한 칼빈의 주석연구” : 설교자 칼빈, 개혁신학 제 15권(서울: 웨스트민스터출판부, 2004), 149-172.

본문의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황으로 추론하며 의미 이해에 필요한 추리를 가능한 많이 이끌어내고 있다.<sup>3)</sup> 우선 두 아들의 거룩하고 칭찬받을 만한 생활 태도에 대하여는 그들이 문화명령(창 3:15)에 성실한 생활 태도를 소유한 자들<sup>4)</sup>로서 부모에게 하나님 경배에 관해 교육을 잘 받은 것으로 추론한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단순히 자기들이 고안해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가정 교회의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부모의 교육을 통해 체득되었을 것으로 추리한다. 이 점에 대해 필자도 동의한다. 그러나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성경적 논거에 대한 주석을 그는 생략하고 있다.

가인과 아벨의 탄생을 설명하며 그들이 장성하게 되었다는 본문의 서두(창 4:1-3)는 단지 계보 소개의 차원이 아니라 예배학적 관점에서 그들의 위치를 지적하는 것이다. "세월이 지난 후에"(יְהוָה מִקֵּץ יָמִים, 4:3)라는 어구를 대부분의 현대어 성경번역자들이 막연한 세월의 흐름으로 보거나 아니면 일년 단위로 볼 때 추수할 때가 이른 것으로 보지만 필자는 그 무엇보다도 두 아들이 장성하여 이제는 부모를 떠나 독립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 점에 관하여 칼빈은 이 때 두 사람의 결혼과 분가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먹고사는 생활면에서의 독립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주체로서 자신들의 말과 행동을 책임질 수 있는 독립적인 위치로 장성하였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이 어구로부터 시작하여 모세는 그들의 제사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다.<sup>5)</sup>

칼빈은 그들의 제사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한다. 하나는 그들이 드러야 할 제사의 목적 내지는 성격이고, 다른 하나는 제사 드리는 자의 자세이다. 우선 제사의 목적과 의의를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당연한 의무로 이해한다.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예배의 사명이다. 예배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구원자에 대해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찬양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신성한 의무는 태초로부터 조상들에게 주어진 명령으로서 교회의 첫 번째 중요한 사명이다.

#### 나. 열납된 예배와 거부된 예배(4-5a절)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주목하여 보셨고 가인의 제사에 대하여는 외면하셨다.<sup>6)</sup> 그 원

3) J. Calvin, *창세기 주석*, 192-194.

4) 그 이유를 칼빈은 두 사람의 생업이 모두 인간생활의 공통적인 용도에 필요했고 하나님이 인정해주신 노동에 자신들의 모든 역량을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Ibid., 192.

5) "세월이 지난 후에"(לְאַחַר יְמֵי, 4:3)라는 어구를 직역하면 "날들의 끝에 이르렀다" 또는 "날들의 끝이 되었다," "날들의 끝자락에 있었다" 등이 가능하다고 본다.

6) 관련 본문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וַיַּעַבְדֵהוּ אֱלֹהֵי הָאֵל וְאֵל מִן

“그러자 여호와와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향하여 주목하여 보셨다.”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신 것은 단지 제물이 아니다. “아벨을 향하여 그리고 그의 제물을 향하여”(וְאֵל מִן אֱלֹהֵי הָאֵל)라는 표현은 단지 제물만이 아니라 그 제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셨다는 것이다.

인은 무엇이였겠는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에 따라 드린 제사요, 믿음으로 드린 제사이며(히 11:4),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인 순종함으로 드린 제사였다(삼상 15:22).<sup>7)</sup> 사람을 외관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심중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삼상 16:7)께서는 외식적으로 드리는 것은 결코 받지 않으신다.

칼빈은 인류 역사 초기의 사람들이 행한 제사 문제를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예배”(Worship)로 해석함으로써 예배의 정신과 자세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다.<sup>8)</sup> 가인의 제사는 온전한 헌신이 결여된 형식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배척을 당한 것이다.<sup>9)</sup> 가인은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의 수여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그는 농사를 통해 얻은 곡식을 자신의 노력과 땀의 대가라고 생각한 것이다.<sup>10)</sup>

히브리서 기자는 두 사람의 제사가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sup>11)</sup>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히 11:4)

동일한 맥락에서 사도 요한은 가인의 제사와 동생을 죽인 악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었느냐. 자기

7) 그는 “그의 양의 첫 새끼들 중에서 그리고 그것들의 기름들 중에서(ומחלבון וזאת)” 가져왔다(4절). 무엇을 말하는가. 첫 새끼보다는 둘째나 셋째 새끼들이 더욱 토실토실할 수 있다. 그러나 첫 새끼로 드렸다는 것은 첫 새끼로부터 마지막 새끼까지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믿었음을 시사한다. 그 믿음에 근거하여 그는 첫 새끼들 중에서도 가장 기름진 것, 즉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그러나, 가인에게서는 그러한 어구를 찾아볼 수 없다. G. J. Wenham은 “아벨과 그의 제물”에 대칭을 이루고 있는 “가인과 그의 제물”에 관련하여 사람이나 동물의 첫 태생과 오곡백과류의 만물에 대하여 율법의 규정을 소개하면서(출 22:29-30; 34:19-20; cf. 출 13:2, 12-15; 4:22; 레 3:16; 신 32:38; 시 147:14) 아벨의 태도는 제물에 대한 성실한 관심을 가지고 선별하였으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G. J. Wenham, *Word Biblical Commentary 1*(Waco; Word Books, 1987), 103.

8) Calvin, 194.

9) Ibid., 196. 이에 덧붙여서 칼빈은 가인의 제사가 덜 여문 곡식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속였기에 열납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하는 유대인들의 견해와 동물의 희생제사는 고기타는 냄새가 강하므로 그 냄새가 하나님을 달래서 아벨의 제사가 열납된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을 비판하고 있다.

10) Wenham은 두 사람의 제사가 하나는 열납되고 다른 하나는 열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다섯 가지 서로 다른 유형으로 정리한다. 첫째는 H. Gunkel의 의견으로서 하나님은 경작자보다 목자를 더 선호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는 Skinner, Jacob등의 입장으로서 동물제사가 곡물제사보다 제사법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열납되기가 쉬웠을 것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동기를 이유로 드는데 아벨의 제사를 선호하여 선택하신 이유는 그의 신비에 속한다는 것이다(von Rad, Vawter, Golka, Westermann 등). 넷째는 히 11:4이 해석하는 것처럼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드렸기 때문이란 것이다. Calvin을 비롯하여 Dillmann, Driver, König 등이 이 입장에서 서 있다. 마지막으로 고대나 현대 주석가들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경향은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제물의 질에 좌우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속하는 Wenham은 만물의 여부와 흠없고 온전한 최상의 제물이었는가의 여부가 결정적 이유였다(레 1:3; 22:20-22; 삼하 24:24)고 주장하는데 필자는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을 포함하여 이 의견에 동의한다.

11) 위의 헬라이어 문구는 관사 없는 분사가 명사나 대명사의 소유격과 함께 사용된 독립 소유격 용법으로서 하나님 자신이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훨씬 훌륭한 제사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요일3:12; cf. 유11)

위의 구절들에 등장하는 “더 나은 제사”를 비롯하여 “의로운 자”와 “악한 자”, ‘의로운 제사 행위’와 ‘악한 제사 행위’ 등의 평가는 어디에 근거하는가? 그것은 제사 드리는 자의 믿음과 그 믿음의 여하에 따라 준비된 제물의 성격, 즉 믿음을 겸한 정성의 유무가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대 교회의 예배를 반성해 보자. 예배는 형식상 두 가지 패턴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sup>12)</sup> 하나는 의식(儀式)으로서의 예배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로서의 예배이다. 의식으로서의 예배란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정해진 순서와 절차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예배는 총회의 헌법이 규정한 “예배 모범”에 입각하여 시행되는 것을 가리킨다.

생활로서의 예배란 무엇인가. 그 개념은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서 찾아 볼 수 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3-16)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16절)는 말씀은 성도들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빛과 소금된 모범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그림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경배하며 자신처럼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라는 뜻이다. 즉, 성도의 생각과 언어, 가치관과 행동 양식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됨으로써 그들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을 흠모하고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예배의 삶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1-2)

이 말씀의 요지는 죄악으로 점철된 세속적인 삶의 목적과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이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대속죄물을 통한 간접적 헌신이었으나 여기에서는 직접 자신의 살아있는 삶을 통한 산제물로서의 삶을 강조한다.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την λογικε

12) 윤용진, *예배와 교육*(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교육국, 2000), 12-14.

v λατρειαν υμων)라고 번역한 헬라어 어구를 직역하면 “하나님에게 [지극히] 합당한(‘옳은’ 또는 ‘바른’) 예배니라”이다. 참된 예배는 시간과 공간, 인종과 이데올로기, 빈부귀천을 초월한다. 그 사실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요4:20-24).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4:23-24)

위의 구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εν πνευματι και αληθεια)라는 어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문법 구조상 전치사가 관사 없는 단순여격 명사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인데 그것은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또는 “영으로써 그리고 진리으로써” 드리는 예배란 뜻이다.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여 성령의 거룩하신 인도함을 따라 살아 계신 구속주 하나님을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예배적 사명이란 예배 모범에 입각한 ‘의식으로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 개인의 빛과 소금된 거룩한 삶을 통한 ‘생활로서의 예배’를 일컫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가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에 후자는 개별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와 같이 예배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적인 삶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 이르기까지의 총체적인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 다. 예배의 사명에 실패한 결과(5b-7절)

칼빈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열납 여하에 대하여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 물론 전통적인 입장을 취하며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몹시 화를 냈다고 그 정황을 주석하고 있다.

LXX과 Vulgate 등의 고대어 역본들, KJV, NKJV, ASV, RSV, NASB 등의 영역본들, 한글개역과 공동번역, 표준 새번역 등의 현대어 성경들이 5b-6절의 번역에 있어서 칼빈과 같은 입장에 서있다<sup>13)</sup>. 그것은 LXX이나 Vulgate의 고대역본의 입장을 칼빈이 따른 것인지 아니면 칼빈도 제사 당시의 정황을 미루어 짐작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성경들은 히브리 원문과 다소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분노하여 화를 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지면을 할애하여 좀더 깊이 논의해 보자.

#### 1) 5절의 번역과 해석

13) 그 중 LXX은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거절당하자 몹시 화를 냈다고보다는 불쾌한 상태로 되었다고 다소 완곡하게 번역하였다. ejpi; de; Kain kai; ejpi; tai" qusivai" aujtou' ouj prosevsken kai; ejluphsen to:n Kain livan kai; sunevpesen tw'/ proswvpw/

5절의 히브리 본문은 다음과 같이 직역할 수 있다.<sup>14)</sup>

ואל־קין ואל־מנחת לא שעָה 5절  
ויהר לקין מאד ויפלו פניו

“그러나 그(하나님)는 가인을 향하여  
그리고 그의 제물을 향하여 주목하여 보시지 않았다.  
그러자 그가 가인에게 몹시 화를 냈다.  
그랬더니 그의 얼굴이 떨어졌다”(5절)

위의 번역에서 문제가 되는 어구는 ויהר לקין 부분이다. 이 어구는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하다. 한 가지는 “그러자, 그가 가인에게 몹시 화를 냈다”이다. 이 경우에 화를 낸 주체가 누구인지 모호하다. 가인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이 구절만 가지고는 화를 낸 “그”(3인칭 남성 단수)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제 3자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른 한 가지는 “그러자, 가인이 몹시 화를 냈다”이다. 전자의 경우는 이 어구의 단문 구조상 그리 어렵지 않는 번역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전치사 ל의 특수용법 중의 하나로서 윤리적 여격(ethical dative)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가능한 번역이다. 이 용법은 동사의 행위 안에 주어와 갖는 몹이나 이익을 강조하면서 전치사 ל으로 이끌리는 명사나 대명사 접미가 주어처럼 사용되는 것이다. 이 용법을 구성하는 두 단어, 즉 동사와 그 동사 바로 뒤에 이어지는 전치사 ל으로 이끌리는 단어 사이에는 인칭과 성, 수가 일치해야한다.<sup>15)</sup> 5절에서는 위의 밑줄 친 두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ויהר와 לקין은 3인칭 남성 단수로서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후자의 번역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구절의 마지막 어구에서 ‘그의 얼굴이 떨어졌다’는 것은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열납되지 못하자 가인은 면목이 없어 고개를 떨어뜨린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일련의 모든 동작들은 앞 선 동작의 결과나 연속되는 효과로서 점진적,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은 5절에 등장하는 동사들의 문법적 특징이 가르쳐 준다. 즉, 맨 앞에 등장한 동사 שעָה는 완료형(perfect)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등장하는 두 개의 미완료

14)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개혁신학 12호*(서울: 웨스트민스터출판부, 2002), 16-20.

15) W. L. Holladay, *A Concis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1971), 168; B. D. B., 515. 전치사 ל이 윤리적 여격으로 사용된 경우, 앞에 위치하는 동사의 주어와 전치사 ל에 의하여 이끌리는 사람의 인칭은 일치해야 한다. 이 용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타동사와 더불어 사용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특히 명령법에 자주 사용되곤 한다. ויעָה לך(창6:14; 민21:8); לך־לך(창12:1;22:2); לה ויהשב(창21:16); לך ברח(창27:43); לו וילך(출18:27). 모세 오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용례들은 이 외에도 קה־לך(창6:21), לעֵיתם לכם(신4:16,23; 암5:26), להבו לכם(신1:13); לו ויקח(창15:10), לי ועֹבה לי(민22:34), לתנו לכם(출7:9; 수20:2) 등으로 무수히 많다. 또한 오경 외의 역사서나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 등에서도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창세기 초반부에 나타난 להם ויעָה(창3:7)가 동일한 용법으로 사용된 예는 출32:31; 호13:2; 렘11:17 등에서도 발견된다. 이 외에 ובאת־לך(삼상22:5), לנו ונלכה(삼상26:11), לך וטה(삼하2:21), לך וכנית(왕상17:3), לך ועלי(사40:9), לי ואלכה(렘5:5), לו ובורד(호8:9), ועלך(욥5:27), לי ונחלתי(욥7:3), לו וישעם(욥12:11), לו ותברכה(욥13:1), לו ושוהלו(호10:1), למו ויגידו(사44:7) 등의 어구들이 동일한 용법의 사례들이다.

(imperfect) 동사 ויפלוא와 וייהר는 접속사 ו(waw)에 이끌리는 와우 계속법(Waw-consecutive)으로 이어지고 있다. 와우 계속법이란 맨 앞의 동사가 뒤에 이어지는 동사들의 시제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동작의 내용도 앞 동사의 결과 내지 연속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먼저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켜보던 아벨이 화를 냈고, 가인은 면목이 없어 고개를 떨어뜨리는 일련의 동작을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문법적 맥락은 전자의 입장에서 번역할 때 더욱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먼저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자 기쁜 마음으로 형 가인의 제사를 지켜보고 있던 동생 아벨은 형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보자 놀라움이 가득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격앙된 소리로 형에게 의분을 발한 것이다.

그러나 위의 두 가지 번역 가능성을 볼 때 화를 낸 주체가 전자의 경우 가인이 아닌 제 3자로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 제사를 응답받지 못한 가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는 다음 6절을 살펴보아야 한다.

## 2) 6절의 번역과 해석

6절의 히브리 본문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ואמר יהוה אל־קין      6절  
למה חרה לך ולמה נפלו פניך: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그가 너에게 화를 내느냐?  
그리고 어찌하여 너의 얼굴이 떨어졌느냐?”

다른 부분은 번역상 문제가 없으나 역시 למה חרה לך가 문제이다. 왜냐하면 앞의 5절에서 살펴 본 것처럼 이 구절에서도 전치사 ל이 윤리적 여격으로 사용되었는가의 여부가 중요하다.

문제 어구 לך חרה를 자세히 살펴보자. 앞의 동사는 “화를 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동사 חרה의 기본형으로서 일반동사의 능동태(Qal), 완료형, 3인칭 남성 단수이다. 즉, “그가 화를 냈다”는 뜻이다. 그러나 바로 뒤에 이어지는 לך는 전치사 ל에 2인칭 남성 단수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대명사 접미가 붙어 있다.<sup>16)</sup> 그 의미를 번역하면 “너를 위하여” 또는 “너에게”이다. 즉, 위의 밑줄 친 어구의 두 단어는 인칭이 서로 불일치하고 있다. 그것은 위의 밑줄 친 어구가 전치사 ל의 윤리적 여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어구는 “어찌하여 그가 너에게 화를 내느냐?”로 읽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화를 낸 주체는 가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가인은 화냄

16) Bible Works 5.0에서는 2인칭 여성 단수 접미로 보는데 이것은 잘못된 이해이다.

을 당한 객체로 나타나 있다. 모든 번역본들이 화를 낸 사람을 가인으로 보는 이유는 아마 당시의 정황에 대한 심정적 추측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제사를 거부당한 가인은 먼목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의 얼굴은 땅을 향해 고개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그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폭발한다든지 아니면 그 분을 향해서 예의 불손하게 성질을 낸다든지 하는 일이 가능한 것인가? 이 점이 바로 가인이 화를 냈다고 주장하는 이들과 칼빈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다.<sup>17)</sup>

### 3) 아벨의 분노

화를 낸 사람이 가인이 아니라고 할진대 그렇다면 가인에게 화를 낸 “그”(3인칭 남성 단수)는 누구일까? 그것은 위의 6절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여 물으시기를 “어찌하여 그가 너(가인)에게 화를 내느냐?”고 하셨다. 여기에서 우리는 가인에게 몹시 화를 낸 “그(He)”는 하나님도 아니고 가인도 아닌 제 3자임을 알 수 있다. 본문의 전후문맥을 살펴 볼 때 화를 낸 제 3자는 아벨이다.

그렇다면 왜 아벨이 가인에게 화를 낸 것일까? 먼저 자기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앞에서 물러난 아벨은 흐뭇한 마음으로 다음 차례인 형 가인의 제사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배의 공동체적 속성상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와 기쁨으로써 예물을 드리며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다. 그래서 예배는 그 어떤 의식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성과 기쁨의 축제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sup>18)</sup> 아벨은 예기치 못했던 일에 몹시 놀라며 의분이 치밀어 올라 형 가인에게 몹시 화를 낸 것이다. 화를 낸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첫째, 아벨의 분노는 공의로운 의분이었던 것이다. 만물의 창조주요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제사를 드린 한 죄인을 엄히 꾸짖는 질책이다. 이 질책은 이 세상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오늘날 교회의 바르지 못한 모습 중에 하나는 서론에서 밝힌 권징을 바르게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난 그 모든 것은 성경의 비판과 질책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성경에 입각하여 회개하고 바르게 고쳐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벨의 질책은 가정 교회의 거룩한 예배 질서를 문란케 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공의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의로운 분노였다.

17) 그러나 칼빈은 위에서 필자가 논한 것과 같은 문법적 해석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그 대신 하나님께 대한 외식적인 신앙행위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을 넘어서 대항하고 맹렬한 분노를 발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임을 지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칼빈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격렬한 화를 발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죄 없는 동생에게 질투와 살의로써 발산되어 결국에는 동생을 죽이게 되었다고 그의 살인 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Calvin, op. cit., 196 - 197.

18) 당시에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열납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였겠는가. 칼빈은 하늘의 불로써 태우셨을 것이라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점성술에 의거하여 상상하는 하나의 우화로 단정하며 성경적 근거가 빈약한 상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이 문제에 관하여 비판만 하고 대안적인 정확한 진술은 없으나 어떤 정황으로든지 가인은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만 기뻐하시고 자신의 제사는 불쾌하게 여기셨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만 해석한다. Loc. cit.

둘째, 그의 격분은 한 가족 된 안타까움에서 ‘도대체 형, 어떻게 준비하여 드렸기에 하나님이 열납하지 않으시오?’라고 책망하는 형제애적인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다. 현대 교회 안에서 구성원이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단지 정죄하며 비난을 퍼붓기보다는 주 안에서의 형제애적인 자세를 가지고 먼저 불쌍히 여기는 자세가 중요하다. 동생 아벨의 분노는 자기의 제사만 열납되었다고 우쭐해진 교만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범죄자에 대해 악의를 가지고 정죄하는 책망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이유의 역사적 배경에는 금단의 열매규정(창 2:16-17)을 어긴 부모의 범죄와 타락사건(3:1-7),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자리 잡고 있다. 자신들의 범죄로 인하여 에덴동산에서 축출된 이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유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자신들이 먼저 성실하게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법을 가장 중요한 삶의 덕목으로 가르쳤을 것이다.<sup>19)</sup> 그러나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자신들의 삶에 분주해서 자식들의 첫 번째 예배의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며 지도하지 않았던 것이 실수였다.

가인의 제사 결과에 대한 가인 또는 아벨의 반응에 대하여 하나님의 반응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인가? 가인의 제사 결과에 대하여 화를 낸 사람을 가인으로 이해하는 칼빈은 6절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신 방법은 불명확하지만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하나님 자신이 직접 가인의 범죄 사실을 심리하시는 법적 공판의 정황으로 이해하고 있다.<sup>20)</sup>

그리고 그는 7절의 “죄의 소원(חַטָּאת)<sup>21)</sup>이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는 의미를 가인의 생각과 행위에 대한 죄책(the guilt)과 그 결과적인 정죄(the condemnation)에 대해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칼빈은 일반적인 죄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목회적 적용에만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따라서 칼빈은 7절의 내용이 5-6절과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인이 화를 낸 것으로 이해하고 그의 형식적인 신앙과 그 결과 악행으로 나아가는 죄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7절의 주해에 있어서 그는 헬라어 역본 LXX와 라틴어 역본 Vulgate을 깊이 다루고 있다. 특히, חַטָּאת의 해석 문제에 관하여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MT와 LXX 그리고 Vulgate의 입장을 면밀히 비교하고 있다. 그 결과 칼빈은 가인이 잘못된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7절 주해의 결론을 중재자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값없는 화해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예배, 즉 가식 없는 예배라고 말하여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문제를 신약시대의 예배 문제로 귀결시킨다.<sup>22)</sup>

19) 아담이 소유한 가르치는 직능과 자녀들에 대한 성실한 교육에 대하여 칼빈도 수긍하고 있다. Ibid., 192.

20) 이 부분에 대하여 칼빈은 아담이 하나님의 선지자 내지 통역자 역할을 했다는 당대의 일부 의견에 대하여 혹독하게 비판한다. Ibid., 198.

21) 한글개역성경이 “죄의 소원”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חַטָּאת는 남자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마음껏 주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여자의 잘못된 “열망”(창3:16, 한글개역성경은 ‘사모한다’는 의미로 번역했음)과 동일한 용어로서 자신의 잘못과 열등감을 범죄로 표출하는 타락한 인간의 사악함을 보여주고 있다.

### III. 결언

이 글은 한국 교회의 바른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적었다. 인류의 첫 가정은 후대를 위한 교회상의 귀감이 되었다. 특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유지의 채널로서 예배의 의의를 이해할 때 이 시대의 교회들이 - 그것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 개인이든, 가정 교회이든, 지역 교회이든 -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아담 이후 노아 시대를 거쳐 아브라함 시대, 출애굽 이후 모세의 광야시대와 사사 시대, 왕국 시대와 포로 진후시대가 보여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배 역사를 훑어보는 것은 다음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율법에 계시된 제사 규례가 시사하는 예배법과 정신은 신약 시대를 사는 현대 교회 성도들에게 예배의 원리적인 면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 지침까지 잘 가르쳐 준다고 볼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예배의 대상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따라서 현대 교회의 성도들은 창조주시오 구속주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유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천천 만만의 수양과 그것들의 기름을 기뻐하시는가?(미 6:6-8) 예수님이 가르치신 “신령과 진정의 예배”(요 4:23-24)는 무엇이고, 바울이 강조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영적 예배”(롬 12:1-2)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를 찾고 계신다(요 4:23). 끝.

---

22) Ibid., 201.